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세금 낭비' 1위

잇단 설계변경 ... 5개 지방청 중 최다

환경영향평가협의 사항도 잘 안 지켜

국토해양부 국감자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5개 지방청 중 가장 잦은 설계변경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협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부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5일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 중인 380개 사업에서 설계변경이 1천222회 이루어졌

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1조 6천억원에 달했다.

이중 익산청에서 139개 사업 중 467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가장 많았고, 대전청이 86개 사업에서 272회, 부산청 77개 사업에서 271회로 뒤를 이었다.

각 사업별 변경 횟수도 부산청 3.5회, 익산청 3.4회 등 평균 3.14번으로 사업별로 3번 이상 설계 변경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총공사비도 당초 20조 5

천992억원에서 22조 2천366억원으로 1조 6천374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 요구가 227건인데 비해, 시행자에 의한 설계변경 요구가 680건으로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의 경우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 요구는 한 건도 없었던데 반해, 시행자에 의한 설계변경 요구가 272건으로 5개 지방청 중 가장 많았으며 익산청 역시 발주자에 의한 것은 51건인데 반해 시행자에 의한 설계변경은 99건이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사계획 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성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1조 6천억원이 넘는 세금이 추가 소요 됐다"고 말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또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33건 적발됐다.

익산청은 구체적으로 문내-황산-해남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조경계획 설계 미반영으로, 광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세풍-중군) 건설공사에서 자연환경 현황조사 미실시 및 수목이식 및 생태통로 설계 미반영으로 지적을 받았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이 자주 적발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지방세 체납 신불자 2,500명

체납액 600억 달해 ... 전국적으로 10만명 넘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광주지역 신용불량자 수가 2천500여명에 이르러 체납액은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지방세 관련 신용불량자가 10만명이 넘고, 체납액은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수 현황'에 따르면, 강원·전북·전남·경북 등 4개 지역(자료 미제출)을 제외한 12개 시·도 체납 신용불량자 수는 모두 9만9천517명, 체납액은 2조6천685만4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치단체별로는 서울시의 체납

신불자가 3만2천616명에 체납액 1조2천21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신불자 3만1천77명, 체납액 6천112억), 인천(신불자 6천570명, 체납액 1천95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는 체납 신불자 2천516명에 체납액 600억7천600만원으로 신불자 수 기준 전국(12개 자치단체 중) 10위, 체납액 기준 8위를 각각 기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최근 지하 1층 생활관 빈하트매장에서 기능성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진드기 방지카펫을 사용한 카펫을 선보이고 있다. 판매가는 140x100cm 크기가 20만원. <광주신세계 제공>

취임 100일 송기진 광주은행장

“현장 목소리 경영에 적극 반영

‘슈퍼 리저널 뱅크’ 성장 박차

“취임후 100일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동북아 중심은행 도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송기진 광주은행장(사진)은 5일 “취임후 100일간의 광주은행의 가능성을 확신한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광주·전남 곳곳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은행 경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행장은 “광주은행이 ‘슈퍼 리저널 뱅크(Super Regional Bank)’로 성장하기 위해선 영업 다각화가 절실하다”며 “안정적인 여·수신 확보는 물론, 외환 및 신용카드 부문 강화 등에 혁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특히 송 행장은 “광주은행은 지역내 여·수신 비중에 비해 외환 및 신용카드 부문의 점유율이 낮다”며 “조직개편 등을 통한 외환업무 강화와 함께 광주은행 카드를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행장은 또 “취임후 현장경영을 통해 금융상품은 고객 입장



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유망 중소기업 및 소호(SOHO) 등에 대한 맞춤형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행장은 “지역밀착 경영을 위해 전남지역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프리 워크아웃(Pre Work-Out)’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행장은 지난 6월 26일 취임한 이후 ▲전남 지자체 9곳과 업무협약 ▲‘프리 워크아웃’ 등 중소기업 지원 ▲유망 소호(SOHO) 지원을 위한 ‘소호명가’ 도입 ▲도이치은행 등 해외 우수 은행과 업무협력 의향서 체결 등의 성과를 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光銀, 유망 ‘소호(SOHO)’ 지원

오늘 ‘소호명가(所湖名家)’ 1호점 현판식

광주은행이 송기진 은행장의 취임 100일에 맞춰 ‘소호명가(所湖名家)’ 상품을 출시하는 등 유망 ‘소호(SOHO)’ 지원에 나선다.

광주은행은 6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의 창영빌딩에서 ‘소호명가’ 1호점의 현판식을 갖는다. ‘소호명가’는 광주·전남의 소호기업 가운데 최고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정 업체는 실적에 따라 최고 1억

원까지 대출한도가 확대되며, 최고 2.0%의 우대금리 제공, 3천만원까지 신용카드 한도 확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작지만 강한’ 소호 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유망 소호기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향토 기업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남농협, 배 소비촉진 팔 걸었다

직판·직거래 장터 운영 대대적 판촉 활동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배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직판·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소비촉진행사를 추진하는 등 전 일직원이 대대적인 판촉활동에 나섰다.

전남본부 관계자는 5일 “올해 생산량 증가와 예년보다 이른 추수명절 등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배 재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배 판촉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농협은 배 소비촉진을 위해 판

내 주요기관과 1사1촌 자매결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원 1인당 배 1상자 더 사먹기’ 구입요청 협조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대형유통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 배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또 수도권 직거래장터를 여는 등 전남산 배 판매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황희철)은 지난달 말부터 어려움에 처한 배 재배농가를 위해 가장 먼저 1주 배 100여 상자를 구입하는 등 ‘배 팔아주기 운동’에 동참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진드기 방지 카펫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최근 지하 1층 생활관 빈하트매장에서 기능성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진드기 방지카펫을 사용한 카펫을 선보이고 있다. 판매가는 140x100cm 크기가 20만원.

KTF 대표이사에 광양 출신 권행민씨

KTF 신입 대표이사에 광양 출신 권행민(49·사진) KT 전무가 선임됐다. KTF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수뢰 혐의로 사퇴한 KTF 조영주 사장 후임에 권행민 KT 전무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권 대표이사는 현재 KTF 이사회 비상임이사이며 KT 그룹전략CFT(Cross Functional Team) 팀장이다.

KTF 이사회는 전임 조영주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른 경영 공백을 막고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양 출신인 권 대표이사는 순천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KT에 입사해 경영진단팀장, 민영



화기획팀장, 비전경영실장, 재무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KT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기획했다. 지난해 12월부터 KT 그룹전략CFT 팀장직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권 대표이사는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되는 등 어려운 시기에 KTF 경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조직 개편과 경영 쇄신을 추진해 주주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소지원 매일 대책회의 企銀 비상경영체제 돌입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매일 아침 대책회의를 여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윤용로 행장과 사업본부장, 주요 부서장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임원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일부터 거래 중 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문제를 진단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매일 아침 임원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에 맞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 8조4천억원에 대해서는 원금 일부 상환 요구 없이 100% 만기를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CHO YOUNG NAM

40년만의 귀향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08년 10월 7일(화) PM 8시

문의: 376-6002

www.choyoungnam.com